
- 목차 -

여는 말 : 1p

MEMO : 2p

시선공통모의고사 1회 총평과 정답 및 해설 : 3p~

- 여는 말

안녕하세요. 시선국어연구소입니다.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은 '시선'을 갖고 제작되었습니다.

1) 콘텐츠 소개와 배포 일정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시선 '공통' 모의고사입니다. 선택과목을 제외한 공통과목만 포함된 모의고사이며, 과년도 저희 팀에서 출제한 지문과 신규 제작한 지문을 함께 활용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모의고사는 '월간지'의 일부입니다. 저희 월간지는

1주차 : 모의고사 배포, 2주차 : 배포 지문 분석, 3주차 : EBS 연계 자료, 4주차 : 연계 자체 제작 문제 배포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활용 방향은 '결들임'입니다. 기존에 들던 커리큘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자료를 결들여서 쓰실 수 있게끔, 없으신 분들께는 저희 자료가 보탬이 되게끔 구성하고 집필하였습니다. 자신만의 루틴대로 공부하며 저희 자료를 참고 자료로 사용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배포 자료는 모두 시선국어연구소 오르비에서 무료로 배포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2) 2026학년도 수능 국어

2026학년도 수능 국어는 등급컷이 말해 주듯,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어려운 지문과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독서에서 과학 지문의 경우 주어진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까다로웠을 것이며, 인문 지문의 경우 추상적인, 그대로 '난해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문제는 해볼 만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치만, 선택과목과 사회 지문에서 시간을 꽤 소요하셨을 것이며, 지문 자체의 난도가 높기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풀기 꽤 어려웠을 겁니다.

둘째로, '까다로운 문법'입니다. 사실 문법 문제는 항상 실제 수능에서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6, 9 모의평가에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음운 변동과 용언의 활용부터 안건-안은문장, 사동-피동과 중세국어 등 거르지 말고 꼼꼼히 공부하셔야 낭패가 없으시겠습니다. 새롭고 독특한 문제가 나온다면 거르지 말고, 그 문제에 담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지 운영 능력'입니다. 결국 수능 국어는 80분 내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추냐의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시간 안배를 하며 1개의 시험지를 full로 푸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하죠. 2026학년도 수능에서 12번과 언매 39번과 같이 정답이 1번인 경우, 확실하다면 그대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자신만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효율적인 시험 운영이 가능할 겁니다.

3) 3모 이후 6평까지의 국어 공부법 권고

실전 연습이 필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6평까지 기출 분석과 수능특강 연계 학습은 모두 마치셔야 할 겁니다. 자신이 수강하는 강사의 커리큘럼을 밀리지 말고 타며, 매일 일정량의 지문을 스스로 읽고 분석하며 자신의 독해 습관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훌륭한 기초 능력이 함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선국어연구소 드림.

- MEMO

출제자의 시선

2027학년도 시선공통모의고사 1회 빠른 정답

공통 과목					
번호	정답	배점	번호	정답	배점
1	⑤	2	18	①	2
2	②	2	19	③	2
3	③	3	20	④	2
4	③	2	21	⑤	3
5	③	2	22	④	2
6	①	2	23	③	2
7	②	2	24	③	2
8	③	3	25	②	2
9	①	2	26	⑤	2
10	③	2	27	③	3
11	②	2	28	①	2
12	⑤	2	29	③	2
13	②	3	30	④	2
14	③	2	31	③	3
15	⑤	2	32	④	2
16	④	3	33	③	2
17	②	2	34	④	3

시선공통모의고사 1회 총평

이번 시험지의 컨셉은 ‘낮췄’입니다. EBS를 연계하지 않고 모두 비연계 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4월임을 고려하여 지문의 난이도는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 독서

주제 통합의 제재는 인문으로 정하였으며, 동서양의 다양한 학파의 견해를 비교, 대조하도록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사회 지문은 화제가 되는 법률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확보할 것을, 기술 지문은 화제가 되는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었으며, 기술 PWM 지문은 조금 까다롭게 출제하였습니다.

- 문학

고전소설은 전형적인 군담 화소의 작품을 선택하여 인물이나 발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군담 화소의 감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갈래복합, 현대소설, 고전시가는 모두 쉽게 출제하였습니다. 다만 23, 30, 34번을 통해 주어진 작품을 장악하였는지를 물어보았고, 단어의 변용이 있었으니 주의하셨어야 합니다.

4월이기도 하여서 난이도는 무난하게 구성하여 출제하였습니다. 독서는 다소 어려웠을 수 있지만, 문학을 쉽게 출제하여 밸런스를 맞춘 시험지이지요.

1회 해설

[1~3] 독서론
인공지능 시대의 비판적 독서 태도

1.

답 ⑤

정답

⑤: 윗글에 따르면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은 깊이 읽기를 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안목을 통해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해야 한다는 인과의 순서가 반대된다.

오답해설

- ①: 윗글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정보는 정보 탐색에 대한 독자의 시간적 비용을 줄여주지만, 출처 등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디지털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독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에코채임버 효과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자신의 주장을 오인하게 되는 것이다.
- ③: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정보의 요약은 효율적이지만, 독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연결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④: 과거의 독자가 존재하던 글을 수동적으로 골라서 읽던 주체라면,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의 독자는 글을 능동적으로 생성하는 주체가 되었다.

2.

답 ②

정답

②: 인지적 편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동반한 ‘깊이 읽기’의 태도가 필요하며, 깊이 읽기는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때 메타인지적 성찰은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편향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심화될수록 ㉡을 통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의 실행에 ㉠은 필요하지 않다. ㉡은 ㉠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 ㉠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윗글에 따르면 디지털 환경은 ㉠을 유발하는 요소이다.
- ④: ㉠의 강화와 정보 왜곡의 발견 확률 증가는 연관이 없다.
- ⑤: ㉠과 ㉡은 독립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 시대의 독서에서 ㉠인 인지적 편향의 발달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3.

답 ③

정답

③: ㉢에서 상충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누락한 맥락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착각하는 에코채임버 효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해설

- ①: ㉢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보고서는 독자의 신념이나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가 선별되어 만들어졌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를 훑어봄으로써 자신의 신념이나 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②: ㉢에서 원전을 찾아 대조하는 것은 보고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대조하기 위

함이다. 이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보고서의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상호 텍스트적 읽기라고 할 수 있다.

- ④: ⑥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보고서 내용 중 특정 관점이 강조된 점을 발견하여 원전을 찾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대조한 것은 보고서 내 정보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이것과 ㉔에서 자료들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비교하는 것은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㉑에서 ㉓로 단계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 탐색에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인공지능이라는 과학 기술의 편의성에 매몰되지 않으려는 독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4~9] 인문

(가): 목가의 사상

(나): 법가 사상과 스토아학파의 차이점

4.

답 ③

정답

-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목가의 사상에 대해 "유가는 ~라고 비판했고", "상동의 강조가 ~ 위험도 지적되었다"며 특정 이론(목가)에 대한 반론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나)는 법가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 대조할 뿐, 외부의 비판이나 반론을 다루지는 않는다.

오답해설

- ①: (가)는 목가 사상의 핵심과 특징, 의의를 다루고 있으나 특정 이론의 '발전 양상(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춘 글은 아니다. (나) 역시 법가와 스토아 학파를 비교할 뿐, 보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②: (가)는 목가의 관점을 설명할 뿐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지 않으며, (나) 또한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보다는 이미 정립된 두 이론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 ④: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목가 사상이 공공의 삶 증진 등과 연결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현실 연결 과정이 (나)에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가)는 목가라는 하나의 사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반론을 덧붙인 구조이며, 두 사상을 동등하게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된 구조로 삼은 것은 (나)이다.

5.

답 ③

정답

- ③: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삼표는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옛 성왕의 가르침에 알맞은가"와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를 따진다. 이는 곧 사상의 정당성(성왕의 가르침)과 실질적인 규범의 효용성(쓸모와 이익)을 모두 확보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정당한 명령을 따르는 것은 삼표가 아닌 목가의 '상동'에 대한 개념이며, 상동은 자발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삼표에는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는가'가 포함된다. 따라서 경험적 근거가 아닌 하늘의 뜻에만 따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목가는 하늘과 귀신을 인정하는 것을 "공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 이해했다. 즉, 미신에서 벗어나려 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사회적 장치로 활용했다.
- ⑤: 삼표 중 첫 번째 기준이 "옛 성왕의 가르침"이므로 옛 규범에서 완전히 탈피하고자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6.

답 ①

정답

-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목가는 공격 전쟁에는 반대하지만 "방어 기술과 병기 운용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따라서 '소극적인 병기 운용을 추구하겠다'는 반응은 지문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오답해설

-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유가는 겸애(친소를 가리지 않는 사랑)가 '친소의 질서'와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적절한 반응이다.
- ③: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상동(윗사람의 명령에 맞춤)의 강조가 다양성과 자발성을 억압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유가의 입장으로 적절하다.
-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법가는 "공로와 성과에 따라 서훈과 승진이 결정되는 능력주의를 제도화"했다. 이는 (가) 1문단에 나온 목가의 '상현(능력과 공로에 따른 등용)'과 일맥상통하기에 적절하다.
- ⑤: (나)의 2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는 "국가의 힘이 아니라 덕에 근거한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목표로 하며, "개인 수양과 이성적 성찰"을 중시한다.

7.

답 ②

정답

- ②: (나)의 1문단과 3문단에 따르면, 법가의 목표는 "국가 질서의 안정과 군주의 권력 유지"이며 "공공의 외적 상태"를 지향한다. 반면 스토아 학파는 "개인의 도덕적 완성"이라는 내적 상태를 지향하므로, 두 사상은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오답해설

- ①: 습관적인 훈련을 통해 정념을 길들이는 것은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의 방식이다.
- ③: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법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은 법가이다. 스토아 학파는 모든 인간을 이성적 동족으로 대하는 박애와 연대를 중시한다.
-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는 신분과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강조하는 "세계 시민"을 지향한다. 친소에 따른 질서는 오히려 (가)의 '유가'가 중시하는 개념이다.
- ⑤: 스토아 학파는 (나) 2문단에 따르면 "덕의 일치"를 윤리의 중심"에 두므로, 도덕이라는 가치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③

정답

- ③: (나)의 2~3문단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의 덕 수양의 최종 목적은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내적 평정'이다. 그러나 <보기>의 C 의원이 제안한 교육과 자체력은 도시의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스토아 학파에게 덕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정책적 효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므로 '목적이 일치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A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받는 방향"을 주장한다. 이는 (가) 2문단에서 "실제로 쓸모와 이익을 낳는가"를 따지는 목가의 실용주의 및 공익 증대 태도와 유사하다.
- ②: B 의원은 "명확한 법규와 강력한 단속, 엄벌"을 강조한다. 이는 (나) 1문단의 "명문화된 규범", "신상필벌의 확실한 집행"을 중시하는 법가의 입장과 유사하다.
- ④: (가) 3문단에 따르면 목가는 "능력에 따른 포상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규율을 실효화해야 한다고 본다. B 의원은 '엄벌'만 강조하고 '포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목가의 관점에서 포상 제도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 ⑤: (나) 2문단에 따르면 스토아 학파는 "덕의 일치"와 "내적 판단"을 중시한다. A 의원처럼 외부적 결과(혜택을 받는 인원수)만 따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은 스토아 학파가 중시하는 도덕적 완성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9.

답 ①

정답

①: ㉠ '들며'는 여기에서 "어떤 사실을 예로 내세우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이를 '보충하며(모자란 부분을 채우다)'로 바꾸는 것은 문맥상 전혀 맞지 않다. '제시하며'나 '거론하며' 정도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②: ㉢ '알맞은가'는 기준이나 조건에 합당하다는 뜻이므로 '합당한가'로 바꿀 수 있다.
- ③: ㉡ '쫓는'은 목적이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뜻이므로 '지향하는'으로 바꿀 수 있다.
- ④: ㉣ '바탕'은 기초가 되는 토대이므로 '기반'으로 대체 가능하다.
- ⑤: ㉤ '본다'는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나 여긴다는 뜻이므로 '간주한다'가 적절하다.

[10~13] 사회

멸종위기생물과 관련한 법률

10.

답 ③

정답

③: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 법령들의 적용 범위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법령 간 경합 시 야생생물보호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지침 준수 등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국내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및 보호 체계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법령 사례와 비교하거나 이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정의와 부처별 관리 업무(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의 통합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법률적 측면에서의 보호와 처벌, 행정 절차를 다루고 있을 뿐,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적 방법이나 그 기술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가 언급되지만, 이를 사례별로 열거하거나 지자체 조례 제정의 '전반적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11.

답 ②

정답

②: 2문단에 따르면 생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일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로 관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인 멸종위기종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의 규정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오답해설

- ①: 3문단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의 포획 등 예외적 허가는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 지자체의 허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2024년 개정안은 무허가 인공증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 이전에는 허가 없이도 가능했다거나 허가 취득 시의 판단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 ④: 5문단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멧돼지 등)의 포획 허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 시행할 수 있으나, 해당 동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장관의 엄격한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유해조수 포획에 환경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법령 간 경합(중복 적용)이 일어날 경우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보호 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위 법령

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12.

답 ⑤

정답

⑤: 4문단에 따르면 불법 증식 등으로 몰수된 개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 관할의 보전기관'으로 이전된다고 되어 있다. 반드시 '환경부 관할' 기관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며, 해양포유류 등의 경우 해양수산부 주관 법령이 적용된다라도 야생생물보호법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환경부의 관리 지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의 경우에도 연구 또는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환경부 허가를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③: 6문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충돌할 경우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답 ②

정답

②: 5문단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멸종위기종'인 경우에는 포획 허가가 극도로 제한되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피해방지단이 투입되지 않은 이유는 유해성 유무보다는 '흰목물떼새가 멸종위기종(II급)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법령 간 경합 시 야생생물보호법의 보호 수준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므로, A 지자체장이 해당 법에 따라 포획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은 타당한 반응이다.
- ③: 5문단에 따르면 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충돌할 때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울타리 설치 시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④: 6문단에 따르면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생물이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일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 관할하며 법령이 중첩되므로, 관리 조건이 더욱 복잡하고 엄격해질 수 있다.

[14~17] 기술

PWM 제어

14.

답 ③

정답

③: 4문단에 따르면, 펄스의 반복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에 펄스의 전원 소자에 강한 열이 발생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선택지처럼 느린 경우가 빠른 경우보다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지문 근거와 반대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1문단에 따르면, 아날로그 제어 방식은 전력 효율이 낮고 전압 조절 시 신호의 분실이 발생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PWM 방식은 전압을 연속적으로 내보내지 않음에도 특정 전압을 계속 인가하는 경우와 닮은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제로 LED가 꺼져 있을 때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3문단에 따르면, PWM 제어 방식은 듀티 사이클을 통해 전압의 평균값을 결정하여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전압의 연속적 조절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15.

답 ⑤

정답

⑤: 듀티 사이클은 전압의 평균값을 결정하는 수치이고, 펄스의 주기가 반복되는 속도는 주파수로 조절할 수 있기에 적절한 서술이다.

오답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듀티 사이클(전압 인가 구간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소모되는 전력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력 소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2문단에 따르면, 주파수가 높을수록(신호가 빠르게 반복될수록) 인간의 눈은 신호를 연속적 흐름으로 인식하여 깜빡임 현상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심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개별 펄스의 켜짐과 꺼짐 구간은 에너지 흐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열이나 잡음과 같은 부가적 손실이 줄어든다고 하였다. 꺼짐 구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열 충격이 커진다는 근거는 없다.
- ④: 3문단에 따르면, 전압의 평균값을 결정하는 것은 주파수가 아니라 '듀티 사이클'이다. 주파수는 반복 속도를 나타낼 뿐 전압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16.

답 ④

정답

④: 2문단에 따르면, 주기는 신호가 한 번 반복되는 시간이다. 주기를 짧게 설정하는 것은 주파수를 높이는 것이지, 그 자체로 평균 동력(평균 전압)의 크기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평균 동력은 주기 내에서 켜진 시간의 비율인 '듀티 사이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2문단에 따르면 듀티 사이클을 통해 소모 전력을 조절하며, <보기>에서도 동력이 전달되는 길이의 비율(듀티 사이클)에 비례하여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1문단과 2문단에 따르면, 충분히 빠른 반복(높은 주파수)은 연속적인 흐름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모터에서도 동력이 자주 전달되면 매끄러운 회전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 ③: 주파수를 낮추면 4문단에서 언급된 과도한 속도에 의한 열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보기>에 따르면 펄스 반복 속도가 너무 느리면 진동과 소음이 가중된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도 주파수가 낮으면 깜빡임 등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17.

답 ②

정답

②: 지문 1문단에서 PWM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이지, 내부적인 작동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닮은'은 비슷하다는 의미의 '유사(類似)'한'으로 바꾸는 것이 문맥상 더 정확하다. '동일'은 완전히 같다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 내보내지 (방출하지):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맥락이므로 '방출'이 적절하다.
- ③: ㉢ 되풀이되며 (반복되며): 같은 현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므로 '반복'이 적절하다.
- ④: ㉣ 쓰면서 (사용하며): 에너지를 이용하는 맥락이므로 '사용'이 적절하다.
- ⑤: ㉡ 지나치게 (과도하게): 정도가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과도하게'가 적절하다.

[18~21] 고전소설

작자 미상, 「유충렬전」

18.

답 ①

정답

①: [A]에서 서술자가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궤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끝숨이 끊어지는구나.'라며 유충렬에 대하여 가련하다고 평가를 제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②: [A]에서는 인물의 회상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교차도 확인할 수 없고 장면의 전환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A]에서는 꿈과 현실의 교차를 확인할 수 없다. 꿈에 빠져드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 인물의 발화는 "항복하라!"뿐이며, 이에 대한 상대의 대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9.

답 ③

정답

③: 윗글에서 유충렬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한담에게 항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유충렬이 적진에 들어가자 적군이 유충렬에게 항복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윗글에서 도사가 정한담을 본진에 귀환시키자 정한담은 도사에게 어찌 알고 자신을 불렀냐며 묻고 있으며 이에 도사가 한담이 만분 위태하여 불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정한담은 도사에게 자신을 귀환시킨 이유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윗글에서 도사는 정한담에게 유충렬은 유심의 아들이니 유심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윗글에서 유심은 군사가 자신을 잡자, 천자가 승전하였으면 자신을 잡아 오라고 할 리가 없다며 충렬이 정녕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윗글에서 정한담은 유심에게, 유심을 생각하여서 유심의 아들인 충렬을 아직 살려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0.

답 ④

정답

④: ㉠에서 정한담은 고관대작은 원대로 할 것이라며 유심에게 자신을 도우면 주어질 보상을 들며 회유하고 있으며, ㉡에서 유심은 정한담을 만고역적이라 칭하는데, 이를 통해 정한담을 비난하며 회유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에서 정한담은 유충렬을 힘으로는 잡을 수 없다고 하며 도사에게 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에서 정한담이 주어질 보상을 말하며 유심을 회유하고 있기에, ㉢에서 정한담이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안을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정한담이 계책을 강구하자 도사가 계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보아, ㉠은 정한담과 도사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도사를 재촉하는 말이라 볼 수 있지만, 유심과 정한담 간에는 위계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는 상대를 재촉하는 말이 아니므로 ㉠은 인물 간의 위계를 바탕으로 상대를 재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㉞에서 정한담은 유심에게 '두려워할 만하구나'라며 빨리 나와 자웅을 겨루자고 하고 있다. 그렇기에 ㉞는 상대를 인정하며 자신과 결판낼 것을 전하는 말이 맞지만, ㉞는 상대에게 자신의 편이 될 것을 전하는 말이 아니기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㉞에서 정한담은 도사에게 '선생의 힘을 입어 목숨'을 구했다며 그 공을 치하하고 유충렬을 이길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㉞에서 정한담이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답 ⑤

정답

⑤: 뒷글에서 정한담이 곤룡포를 정히 입고 유심을 잡아다가 달래어 그를 회유하는 것은 조력자의 계책과 정합적이지 않다. 도사의 계책은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한담이 곤룡포를 정히 입고 유심을 잡아다가 달래어 그를 회유하는 것은 조력자의 계책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적대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도사의 말에 따르면 유충렬의 칼끝에 정한담의 투구가 깨어져서 만분 위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정한담을 불러들인 것은 조력자가 적대자를 구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도사는 정한담에게 군장 기계를 모아 적장을 유인하여 진중에 들게 하자고 계책을 제안하였다. 원수가 적진에 달려들자 안개가 사면에 가득해지고 장창검극이 삼대같이 벌어진 모습은 도사의 계책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충렬을 제압할 도사의 계책은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 하자는 것이고, 그 이유는 유충렬이 유심의 아들이라는 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조력자인 도사의 계책은 유심을 잡아다가 진중에 가두고 죽이려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유주부가 군사에게 잡혀서 수레 위에 실린 후 적진 중에 득달하는 것은 도사의 계책이 실행되는 중인 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22~27] 갈래복합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 김광균, 「설야」

(다) 이효석, 「마음의 공허감」

22.

답 ④

정답

④: (가)에서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것을 봄을 여윈 것에 비유하고,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는 흰 눈이 내리는 모습을 서글픈 옛 자취에 비유하며, (다)에서는 공허감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생애의 커다란 변화기에 비유한다. 이를 통해 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다)에서는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②: (나)에서는 향토적 소재인 호롱불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가)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③: (가)에서는 색채어를 확인할 수 없다.

⑤: (나)에서는 과거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거고, (가)와 (다)에서 드러나는 과거의 장면 회상은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 모색과 연관이 없다.

23.

답 ③

정답

③: 홀로 잇는 밤에 눈이 뜰에 내리면 머언 곳에 여인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그리운 대상이 부재하고 있는 공간에 눈이 내림으로써 부재한 대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이를 통해 부재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인의 소리'는 머언 곳에서 들리는 소리이지 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이며, 여인의 소리를 감지한 이후에도 화자는 눈을 보며 추억의 조각을 생각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엔 한 밤에 소리 없이 눈이 흩날리느뇨라는 말은 한 밤에 흩날리는 눈을 보며 어느 먼 곳에서 온 그리운 소식인지 생각하는 모습이다. 이는 내리고 있는 눈을 통하여 그리워하는 대상을 연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보기>에 따르면 눈은 먼 곳에 존재하는 그리움의 대상들을 상기시키는 소재이다. 따라서 흰 눈이 내려서 입김이 나오고 절로 가슴이 메는 것은 내리는 눈을 통해 그리운 것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④: 희미한 눈발이 어느 추억의 조각이기엔 싸늘한 추위가 이리 가쁘게 설레이는 지 말하는 것은 흩날리는 눈을 통하여 상실한 대상 즉 추억을 생각하며 추위를 느끼는 것이다.

⑤: 차단한 의상을 한 눈이 쌓이는 것은 상실한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며, 그 눈 위에 슬픔이 고이 서리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슬픔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4.

답 ③

정답

③: 무덤덤 날에 떨어진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는 것은 모란이 자취를 감추던 날의 무더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화자와 모란의 관계를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라는 화자의 말은 모란이 피길 인내하는 것에 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②: 모란이 떨어져 버리는 것은 대상을 상실한 것이며 이때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기는 것은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모란이 사라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이 무너진 것은 모란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보람에서 상실감내지 서운함으로 변화한 것을 드러낸다.

⑤: 모란이 피기까지 화자가 아직 기다릴테라는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봄의 특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이러한 봄의 양면성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봄을 가리켜 찬란하다던가 슬프다고 하는 것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5.

답 ②

정답

②: ㉠은 여위어 가는 대상인데, 이는 시간이 경과하며 희미해지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은 화자가 당면한 의기가 없다는 문제의 원인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이 여위어 가는 것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상실감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투영한다고는 볼 수도 있다. 또한 ㉡은 화자가 진단한 타인의 결점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다.

③: ㉠은 화자의 이상향이 형상화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④: ㉠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이 심화되고 있지는 않다. ㉡은 공허감인데, 화자의 문학에 관한 계획이 지닌 결점이라 보기 어렵다. 이 결점은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기에 ㉡이라 보기에는 어렵다.

⑤: ㉠을 통해 화자가 지닌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26.

답 ⑤

정답

⑤: ㉔는 이러한 절박함이 악몽처럼 지나가길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는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태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㉓는 타인의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는 말인데, 이는 뒤의 내적인 생활의 쓸쓸함을 토로하는 말과 연결된다. 따라서 타인의 소식을 받은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어 자신의 내적 쓸쓸함을 부각하는 말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②: ㉕에서는 문학과 문학보다 더 근본적인 생각을 대비하여 화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문학보다 근본적인 생각을 강조한다.
- ③: ㉔는 꿈의 한계가 줄어들고 죄어오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드러내는 말인데, 이는 바로 직전의 '마음이 아주 늙은 것'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 ④: ㉕는 환경의 변화 즉,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신이 당면한 허무감이라는 심경이 해소될런지 기대를 드러내는 말이다.

27.

답 ③

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가)의 화자는 모란이 개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모란이 지고 화자의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지고 섭섭해 운다고 표현한 것은 결핍 해소에 대한 소망이 좌절된 것이 아니라, 모란이 사라지자 해소되었던 결핍이 다시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라 표현한 것은 삶의 궁극적 가치의 모색, 즉 모란이 피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다)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쉬운 노릇이 됐다고 표현한 것은 의지할 곳이 결핍된 (다)의 화자가 허무감에 휩싸여 삶에 관한 의지를 상실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④: (다)에서 앞으로의 반생이 얼마나 생광이 있겠냐고 표현한 것은 인물이 내린 자신의 남은 삶에 관한 비관적인 진단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⑤: (가)에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다는 표현은 화자에게 삶의 궁극적 가치의 추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보기>에 따르면 모란은 삶의 궁극적 가치를 의미하므로, 이런 삶의 궁극적 가치가 도래하였다가 결핍되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만다는 표현은, 이러한 가치의 모색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에서 화자가 문학의 플랜을 세워 보다가도 무의미하게 생각되면 의기가 잦아든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정적인 시선을 지닌 인물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비관적인 진단이라 볼 수 있다.

[28~31] 현대소설
김승욱, 「역사(力士)」

28.

답 ①

정답

①: 윗글에서 젊은이는 처음에는 양옥집에 관하여 존경심을 가졌으나, 얼마 안가 그 감정은 단지 처음 보는 경치에 보내는 감탄과 같은 성질의 것임을 깨달았다. 이는 젊은이 자신의 시선으로 양옥집에 대한 자신의 심경 변화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타당하다.

오답해설

②: 윗글에서 처음에는 젊은이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후반에는 '나'의 시

선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동일한 장면의 객관적 서술과 관련이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에서 양옥집의 식구들을 향한 젊은이의 행위는 젊은이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윗글은 초반에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젊은이 자신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후반에는 젊은이의 얘기를 듣고 있는 '나'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서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서술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윗글에서 인물 간의 대화는 젊은이가 "어느 쪽이 틀려 있었을까요?"라 묻자, '나'가 "글쎄요."라 답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의 전말에 대해 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인물의 의구심을 풀고자 질문을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맞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답 ③

정답

③: '본질적으로는 두 쪽이 같지 않느냐'에서 두 쪽은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식구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㉔는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의 식구들 중에 '한편'이 틀려 있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나'는 기타 켜는 시간을 할아버지에게 배치받은 이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㉓를 통해 그 이유가 '흥이 나지 않아서'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앞에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관해 매일매일 달리고 있으며, 그렇기에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이해하였다. 하지만 ㉕에서 '그 어느 지점이 무한히 먼 곳에 있을 때도 우리는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며 그들이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다는 자신의 의문에 관해 반례를 던지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맥락상 ㉕의 '그의 얘기'는 ㉔ 이전의 윗글 내용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그'는 '그 젊은이'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㉔에서 '어느 쪽'은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식구들 중 한 쪽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㉔는 앞서 '젊은이'가 품은 의문인 윗글의 젊은이가 품은 의문인 '창신동 빈민가 사람들과 양옥집 사람들 둘 중에 한 편이 틀렸는가?'를 공원의 '나'에게 질문하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0.

답 ④

정답

④: '나'는 기타를 튕겨 보다가 할아버지에게 기타 켜는 시간을 배치받은 후 흥이 나지 않아서 배치받은 시간에 기타를 켜지 않았다. 따라서 ㉔는 인물이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계기라 볼 수 있다. 또한, ㉕은 '나'가 기타를 켜다가 할아버지에게 기타를 켜는 일을 제약받은 결과이기에, ㉕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㉔으로 인해 인물은 기타 켜는 일을 제약 받았다. 따라서 ㉔는 인물이 제약을 받게 되는 계기라 볼 수 있지만, 윗글에서 ㉕으로 인해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는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인물은 확인할 수 없다. '나'가 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는 것도 윗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㉕을 사용하는 인물도 확인할 수 없기에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㉕은 '나'에게 적용되어서 기타 켜는 시간이 제약되었으므로 ㉕은 인물을 제약하는 요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㉔으로 인해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질타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나'가 속해있는 양옥집의 식구들은 ㉕을 따르고 있기에 ㉕은 인물이 속한 집단이 따르는 규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㉕은 규율이 탄생한 원인이 아니라, 규율이 적용 받은 결과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1.

답 ③

정답

③: '나'가 콧 피아노를 울리면 그들이 나무란다는 것은 '나'의 저항이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나무라는 것은 방에서 뛰어나와서 '나'에게 무슨 소란이냐고 나무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저항에 성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가 피아노를 콧 하고 울리면 그들이 나무랄거라 생각하는 것은 저항에 실패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닌, 성공할 것을 예상하는 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나'는 양옥집 식구들이 견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빈민가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양옥집 사람들이 견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양옥집에 대한 그의 이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양옥집 식구들은 위대한 가풍, 즉 그 집의 질서에 구속되어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식구들의 생활이 빈곤테기의 생활이라 생각한 것은 양옥집의 질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나'는 피아노를 치고 방에서 식구들이 뛰어나와서 자신을 나무랄 것을 기대하며 피아노를 내리쳤다. 또한 피아노를 치자 식구들이 뛰어나오는 것은 질서를 깨버리기 위한 저항에 성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피아노를 치자 방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었으므로 그는 질서를 깨기 위한 저항에 실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나'가 모두가 잘 시간에 피아노를 시끄럽게 치자 할아버지가 나온 것은 '나'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또한, 그가 피아노에서 멀어져서 방에 들어가는 것은 저항에 실패하고 질서에 다시 예측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를 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팔이 역세계 느껴진 것에서 질서에 예측시키려는 폭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32~34] 고전시
(가) 정철, 「속미인곡」
(나) 이신의, 「사우가」

32.

답 ④

정답

④: (나)는 대나무를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여서 대나무가 청풍을 반겨 흔덕흔 덕 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대나무의 역동적 이미지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②: (나)에서는 두 대상의 대비는 드러나지만,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한 대상에 대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33.

답 ③

정답

③: ㉠을 통해 화자는 꿈에서 깨어 현실을 마주하여 '어와 헛이로다 임은 어디 갔는가'라 하고 있다. 이는 꿈에서 깨어 현실을 자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은 화자의 긍정적인 처지를 부각한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을 통해 화자는 님을 만난 꿈에서 깨어 현실을 마주하고 님이 존재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므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촉발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은 화자의 부정적 처지를 부각하는 대상이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촉발하는 대상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화자가 다른 대상과 동일시하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을 통해 화자는 님을 만난 꿈에서 깨어 현실을 마주하고 님이 존재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므로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결핍감을 유발한다 볼 수 있으나, ㉦은 화자의 결핍감을 유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4.

답 ④

정답

④: (가)에서 화자를 따르는 것이 '가여운 그림자' 뿐이라는 것은 임과 이별한 화자 자신의 처연함이라 볼 수 있지 화자와 이별한 임이 느끼는 처연함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에서 자신의 죄가 '산 같이 쌓였으니' '사람을 탓하랴'라는 말은 각각 화자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를 탓할 수가 없고 나의 탓이라는 화자 자신의 자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보기>에 따르면 '사우'는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한다. 이때, (나)에서 화자가 칭고한 '내 벗이 다만' 국화라고 한 것은 사대부의 고고한 기상을 상징하는 '사우' 중 하나인 국화에 대한 예찬을 의미한다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가)에서 '꿈의 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화자의 모습은 임금으로 상징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 한편, 소나무가 '풍상'을 겪어도 '시드는 줄' 없는 것은 어려움이 와도 시들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에서 화자는 '낙월'이 되어서 임이 있는 창 안에 흰히 비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는데, 이는 임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 대나무가 '온갖 꽃'과 달리 푸른 것은 지조를 꺾어 변한 속된 선비들과 달리 지조를 지키는 사대부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